

성경 속 거인들

모세 오경

그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옛날의 용사들, 곧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되었다. (창세기 6:4)

거기서 우리는 거인족, 곧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족의 후손이었다. 우리는 우리 눈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 (민수기 13:33)

옛날에 에밈 족속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크고 수가 많고 키가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낙 족속처럼 거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신명기 2:10-11)

신명기 2:19-21
네가 암몬 자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거나 간섭하지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네게 주지 않겠다. 내가 그 땅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거인들의 땅으로 여겨졌으니, 옛날에 거인들이 그곳에 살았고, 암몬 자손은 그들을 잠줌밈이라 불렀다. 그들은 아낙 자손처럼 크고 많고 키가 큰 백성이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그 땅에 거하게 하셨다.)

바산 왕 오그만이 거인족의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들어졌더라. 암몬 자손의 랍밧에 있지 아니하냐? 그 길이는 아홉 규빗이요, 너비는 사 규빗이었는데, 이는 사람의 규빗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때에 소유했던 이 땅, 곧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엘과 길르앗 산 반쪽과 그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노라. 그리고 나머지 길르앗과 오그의 왕국이었던 바산 온 땅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곧 아르곱 온 땅과 바산 온 땅, 곧 거인들의 땅이라 불리던 곳을 다 주었노라. (신명기 3:11-13)

역사

그리고 바산 왕 오그의 해안은 거인족의 남은 자들 중 하나였는데, 그들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였다. (여호수아 12:4)

바산에 있는 오그 왕국의 온 백성,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통치하던 자들, 곧 거인족의 남은 자들.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냈느니라. (여호수아 13:12)

경계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나 여부스 사람의 남쪽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이 곧 예루살렘이다. 또 경계는 서쪽으로 힌놈 골짜기 앞에 있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산꼭대기는 북쪽으로 거인 골짜기 끝에 있다. (여호수아 15: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큰 백성이라 할지라도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이 너무 좁으면 페리싯 사람들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베어내어라." (여호수아 17:15)

그리고 그 경계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까지 내려왔고, 북쪽으로는 거인 골짜기에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여부시 산 옆으로 내려가 힌놈 골짜기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엔로겔까지 내려갔다 (여호수아 18:16).

사무엘상 17 장
1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유다에 속한 쇼코에 모여서 쇼코와 아세카 사이, 에베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3 블레셋 사람들은 한쪽 산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쪽 산 위에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4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나왔는데,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었다.
5 그는 머리에 놋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었다.
6 그리고 그는 다리에 놋쇠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했고, 어깨 사이에는 놋쇠 과녁을 착용했습니다.
7 그의 창대는 베틀의 북처럼 굵었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나 나갔다. 그리고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 나아갔다.
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요 너희는 사울의 신하들이 아니냐?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9 만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십시오.
10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겠다.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을 한 명 보내라."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하였다.
12 다윗은 베들레헴유다 에브랏 사람 제시의 아들이요, 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제시는 사울 시대에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13 이새의 맏아들 셋이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으니, 전쟁터로 나간 맏아들 엘리압이요, 그 다음이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니라.
14 다윗은 막내였고, 셋은 사울을 따랐습니다.
15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양 떼를 치러 갔다.
16 블레셋 사람은 아침저녁으로 가까이 와서 사십 일 동안 모습을 드러냈다.
17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빵 열 개를 가져다가 네 형제들에게로 달려가라 하니라
18 그리고 이 치즈 열 개를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네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보증을 받아라.
19 그때 사울과 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20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 떼를 관리인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길을 떠나 참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군대가 싸우러 나가고 있었고, 다윗은 전투를 외쳤습니다.
21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대치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었더라.
22 다윗은 마차를 마부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23 다윗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보라, 블레셋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용사 골리앗이 나타나서 다
윗이 말한 것과 같은 말을 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다.
24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도망쳤다.
25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올라온 것
이니라.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큰 재물을 주고 자기 딸을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
유롭게 해 줄 것이니라.
26 다윗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없애는 자에게
무엇을 해 주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27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를 죽이는 자에게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28 그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다윗에게 노하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양 떼는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29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30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여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였다.
31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들은 사울 앞에서 그 말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하였더니 사울이 사람을 보내
어 다윗을 불렀다.
32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
다.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갈 수 없느니라 너는 아직 어리고 그는 어
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라
34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 떼 중에
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먹었나이다 하니라
35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그를 쳐서 그의 입에서 그것을 빼냈고, 그가 나에게 대항하여 일어섰을 때, 나
는 그의 수염을 붙잡고 그를 쳐서 죽였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으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
했으므로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37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
라 하니라
38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놋쇠 투구를 씌우고, 또 사슬 갑옷을 입혔다.
39 다윗은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가려고 했으나, 아직 갑옷을 시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사
울에게 이르되, "이 갑옷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아직 시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갑옷을 벗었다.
40 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시냇물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자의 가방,
곧 배낭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든 채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41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갔다.
42 블레셋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고 다윗을 보자 그를 업신여기었다. 다윗은 어리고 얼굴이 붉고 용모
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43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개냐 네가 몽둥이를 들고 내게 오느냐? 하고 자기 신들
을 불러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하니라
45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
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어 버리리라. 또 오늘 내
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게 하리라.

47 이 모든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의 것이며,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을 만나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급히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맞으
러 군대 쪽으로 향하였다.
49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어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50 그리하여 다윗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죽였으니,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51 그러므로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골짜기와 에크론 성문
까지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샤아라임으로 가는 길, 곧 가드와 에크론에 이르기까
지 쓰러졌습니다.
53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천막을 약탈했습니다.
54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나, 그의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55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가는 것을 보고 군대 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시여, 맹세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56 그러자 왕이 이르되 그 어린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57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손에 든 채 사
울 앞에 데려왔다.
58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노라, 나는 베들레헴
사람인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거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비베놉은 창의 무게가 놋쇠 삼백 세겔이나 나갔는데,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 네가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투가 있었는데, 후샷 사람 셉베개가 거인의 아들 중 하나인 사프를 죽였습니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투가 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 야아레오레김의 아들 엘하난이 깃 사람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의 창대는 베틀의 북처럼 굵었습니다. 가드에서 또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키가 매우 큰 사람이 있었고, 손가락이 여섯 개씩, 발가락이 여섯 개씩, 총 스물네 개나 있었습니다. 그도 그 거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가드에 있던 그 거인의 아들들이었는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21:16-22)

그 후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후샷 사람 싯바개가 거인의 자손인 싯개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정복되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깃 사람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라흐미의 창대는 베틀의 북처럼 굵었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스물네 개나 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여섯 개, 양발에 여섯 개씩이었습니다. 그 역시 거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동생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들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자손이었는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역대기상 20:4-8

그는 나를 겹겹이 무너뜨리고, 거인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욥기 16:14)

외전

그 용맹한 자는 젊은이들에 의해 쓰러지지 않았고, 티탄의 아들들이 그를 치지도 않았으며, 높은 거인들이 그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므라리의 딸 유딧이 아름다운 얼굴로 그를 약하게 하였습니다. (유딧 16:7)

옛날에도 교만한 거인들이 멸망했을 때, 주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던 세상의 소망은 연약한 그릇에 담겨 모든 시대에 후손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14:6)

그는 어리석음의 힘으로 무너져 내린 옛 거인들을 달래려 하지 않으셨다. (집회서 16:7)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자를 새끼 염소처럼, 곰을 어린 양처럼 다루었습니다. 그가 아직 젊었을 때 거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물매에 돌을 넣어 골리앗의 오만함을 꺾어 백성의 수치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힘을 주셔서 그 용사를 죽이고 그의 백성의 뿔을 세우셨습니다. (집회서 47:2-5)

태초부터 키가 크고 전쟁에 능했던 거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지식의 길을 주시지도 않으셨다. 그들은 지혜가 없었으므로 멸망했고,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바룩 3:26-28)

그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거인처럼 갑옷을 입고 전쟁 도구를 두르고 칼로 군대를 보호하며 싸웠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사자 같았고, 먹이를 향해 포효하는 새끼 사자 같았습니다. 그는 악인들을 추격하고 찾아내어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의 손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왕들을 슬프게 했고, 그의 행적으로 야곱을 기쁘게 했으며, 그의 기념은 영원히 복될 것입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성읍을 두루 다니시며 악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이 땅끝까지 퍼졌고, 멸망 직전에 있던 자들까지도 그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카베오서 3:1-9)

에녹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자 아내를 맞이하여 한 사람씩 택하고, 그들과 동침하여 자신들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술과 마법, 뿌리 자르는 법을 가르치고 식물에 대해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신하여 키가 삼천 엘(엘은 북서유럽의 측정 단위로, 원래는 큐빗, 즉 팔뚝과 뻗은 손을 합한 길이로 이해되었습니다. 다른 측정값으로는 27~45 인치에 해당합니다)이나 되는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소유물을 먹어 치웠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거인들은 인간에게 등을 돌리고 인류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와 짐승과 파충류와 물고기에게 죄를 짓기 시작했고, 서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에녹서 7:1-6

여인들이 거인들을 낳았으므로 온 땅이 피와 불의로 가득 찼도다. (에녹서 9:9)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녹아, 의로운 사람, 의의 서기관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로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가서 하늘의 파수꾼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너를 보내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야지 사

람들이 너희를 위해 중보해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너희는 높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을 버리고 여자들과 동침하여 사람의 딸들과 더럽히고 아내를 취하여 땅의 자식들처럼 행하여 거인들을 아들처럼 낳았느냐? 너희는 거룩하고 영적인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도 여자의 피로 더럽히고 육신의 피로 자녀를 낳았으며, 사람의 자식들처럼 육신과 피를 탐하여 죽어가는 자들처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 임신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여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전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세상 모든 세대에 걸쳐 불멸할 존재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내를 정해주지 아니하였으니, 하늘에 속한 영들은 하늘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제 영과 육신에서 나온 거인들은 땅 위의 악령이라 불릴 것이며, 땅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악령들은 그들의 몸에서 나왔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거룩한 파수꾼들에게서 그들의 시작과 근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 위의 악령이 될 것이며, 악령이라 불릴 것이다. 하늘의 영들은 하늘에 거할 것이지만, 땅에서 태어난 땅의 영들은 땅에 거할 것이다. 거인들의 영들은 땅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멸망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킨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굶주리고 목마르며, 범죄를 저지른다. 이 영들은 사람의 자녀들과 여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에녹서 15:1-11)

거인들의 학살과 파괴와 죽음의 날부터, 그들의 육체에서 나온 영혼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자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종말의 날, 곧 세상이 완성되는 큰 심판의 날까지 멸망을 자행할 것이며, 파수꾼들과 불경한 자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에녹서 16:1)

나 에녹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땅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내가 이미 환상으로 이것을 보았고 너에게 알리노니 내 아버지 야렛 시대에 하늘의 천사들 중 일부가 주의 말씀을 어겼느니라 보라 그들이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며 여자들과 합하여 죄를 짓고 그들 중 일부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느니라 그들이 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육에 따른 거인들을 땅 위에 낳을 것이요 땅에 큰 형벌이 임할 것이며 땅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이 될 것이니라 참으로 온 땅에 큰 멸망이 임할 것이요 대홍수와 큰 파괴가 일 년 동안 있을 것이니라 에녹서 106:13-16

희년

사람의 자손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희년의 어느 해에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아름다워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거인이었다. (희년 5:1)

이 세 가지 일로 말미암아 땅에 홍수가 났으니, 곧 파수꾼들이 자기들의 규례를 어기고 사람의 딸들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여 부정한 것을 시작하였음이라. 그들이 나피딤이라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모두 서로 달랐고 서로 잡아먹었더라. 거인들이 나필을 죽이고 나필은 엘요를 죽이고 엘요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이 서로를 죽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팔아 불의를 행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땅이 불의로 가득 찼더라. (희년서 7:21-23)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거인들의 심판과 소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악행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음행과 부정한 행위와 음행으로 인한 상호 부패 때문에 죽었는지 말입니다. (희년서 20:5)

그러나 전에는 그들이 길르앗 땅을 르바임 족속의 땅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곳이 르바임 족속의 땅이었고 르바임 족속이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들은 키가 10 규빗, 9 규빗, 8 규빗, 심지어 7 규빗에 이르는 거인들이었더라. (희년서 29:9)

에덴의 잊혀진 책들

그 사람들이 나를 다섯 번째 하늘로 데려가 내려놓았는데, 거기서 나는 그레고리라고 불리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았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크기는 거인보다 훨씬 컸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입은 영원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다섯 번째 하늘에는 아무런 의식도 행해지지 않았다. 나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저들은 이토록 수척하고 얼굴은 우울하며 입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어째서 이 하늘에는 의식이 행해지지 않는 것인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이들은 그레고리들이라 하였으니, 그들의 군주 사타나일과 함께 빛의 주님을 거부하였느니라. 그들 뒤에는 둘째 하늘의 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 중 셋이 주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와 에르몬이라는 곳에 이르러, 에르몬 산자락에서 서약을 어기고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아내를 취하여 그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느니라. 그들은 그 시대에 항상 무법과 혼합을 일삼았고, 거인과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태어났으며 큰 원한이 생겼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심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울부짖고 주님의 큰 날에 벌을 받을 것이니라. (에녹의 비밀 18:1-4)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음행을 피하고, 아내와 딸들에게도 머리와 얼굴을 꾸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명하여라. 이런 간계를 부리는 여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홍수 전에 파수꾼들이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유혹하였으니, 파수꾼들이 그들을 계속 바라보며 음욕을 품고 마음속으로 음행을 꾸몄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남편과 함께 있는 파수꾼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은 여자들은 거인을 낳았으니, 파수꾼들이 하늘에 닿을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행을 조심하고, 마음이 순결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여자에게서 마음을 지키라. 르우벤의 유언 2:17-20

키가 거만한 왕 아골이 말을 타고 앞뒤로 창을 던지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60 파운드(약 27kg) 무게의 돌을 집어 던져 그의 말을 맞추니 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은 모든 왕들의 왕이자 힘이 센 거인으로 키가 12 규빗(약 35cm)이나 되는 벨레샷을 죽였습니다. (유다의 유언 1:18,22)